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3장-5장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소고: 로마서 1:18-32과의 주제적 병행성을 중심으로

한상화 교수(아신대)



1. 서론

칼빈 연구에 있어서 주요 논제 중에 하나는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논제라고 할 수 있다.³³⁾ 이 논제에 대하여 일찍이 헤르만 바우케(Hermann Bauke)는 칼빈 신학의 중심 원리는 신학적 내용들의 내적인 발전과 전체적인 구조적 형식에서 그 힌트가 발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⁴⁾ 그는 칼빈 신학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성경주의(Biblicism)”라고 했다.³⁵⁾ 이러한 관찰은 강요의 1560년 불어판 서문에 있는 칼빈 자신의 다음의 말에 의해 지지된다.

나의 독자들이 본서를 통하여 더 나은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나는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본서를 읽을 때, 어떠한 목적에 맞춰 그들의 의도를 정위시켜야만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비록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그의 무한한 진리의 보고를 펼쳐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에 더 첨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리 저리 방황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모종의 안내자와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충만한 빛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다른 이들에

³³⁾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9-21.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시도들이 제시되었고 Herman Bauke도 그들 중에 하나로 그의 저서 *Die Problem der Theologie Calvins*에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³⁴⁾ Herman Bauke, *Die Problem der Theologie Calvins*, (Leipzig: Verlag der J. C. Hinrichs'schen Buchhandlung, 1922), 11.

³⁵⁾ Ibid.

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독교 철학을 이루는 주요하고 무게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들의 내용 전체를 발견케 하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³⁶⁾

이 인용문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 기독교 교리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도움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그것들은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적 주제들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도 된다.

만일 이러한 전제가 옳다면,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교리도 역시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만 하고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들로부터 파생되어진 성경적 가르침이어야만 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자연 지식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칼빈은 결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 신학의 방식으로 다룬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자연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유신 논증에 근거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³⁷⁾ 심지어 그는 유신논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단 하나의 예외는 강요 I, vii, 4절에서 부정적으로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이성적 증명”에 마음 쓴 적이 없다고 한 예뿐이다. 오히려 칼빈의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에 관한 설명은 다양한 성경적 구절들에 근거하고 있고, 그 중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강요 1권 3장부터 5장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논의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논의는 그 주제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의 근본 토대가 된다. 이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적으로 형식에 주목하여 관찰을 한 후에 주제적인 병행성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³⁶⁾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F. L. Battles and ed. J. T. McNei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6. 이후부터 “Institutes”로 줄여서 표기.

³⁷⁾ Arvin Vos, *Aquinas, Calvin and Contemporary Protestant Thought* (Grand Rapids: Eerdmans, 1985)에 보면 “Calvin and Natural Theology,” 116-122란 글에서 Vos는 주장하기를, 칼빈은 결코 자연신학에 대하여 다룬 적이 없고 우리는 그의 자연신학에 대한 거부물 그의 스콜라 신학에 대한 거부로부터 유추해야만 한다고 했다. 122.

2. 강요 1권 3장부터 5장에 나타난 롬 1:18 이하에 대한 직접 인용들과 암시 구절들.

칼빈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그의 강요 전체에서 11번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그 중 5번이 1권 3장부터 5장 내에서 인용된다. 이 다섯 번의 직접 인용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처음 두 번의 인용은 강요 1권 4장 1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칼빈은 인간 정신 내의 부패된 하나님의 지식을 논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부패되어 가는 것을 칼빈은 단계별로 다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처음에 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 한다고 한다. 둘째로, 그리하여 그들은 공허한 사색으로 치달리며, 셋째로 그들 자신의 망상에 따라 신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 마음의 허구와 환영의 일부를 섬긴다. 여기에서 칼빈은 인간의 미신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 텍스트의 사용은 칼빈과 바울의 논증의 정황을 볼 때, 매우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인용은 강요 I, v, 1에서 발견되는데, 5장에서 칼빈은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하며, 1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명료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변명을 알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그는 롬 1: 19-20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설명한다. “우주에 나타난 신성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여서 심지어는 가장 미개한 부족의 눈에도 피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칼빈은 “만민이 다 바라볼 수 있다고” 원문에다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인용은 강요 I, v, 13절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주장한 대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주의 구조에서 창조주의 위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졌다”고 인용한다. 롬 1장 21절로부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란 구절만 떼어서 사용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불경건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인용은 강요 I, v, 14절에 나타나는 롬 1:19인데, 이 절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무익함에 대하여 논증하는 부분이다. 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3절과 함께 자연적 지식과 신앙적으로 조명된 지식 사이의 차이점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칼빈은 말하기를 오직 신앙의 눈을 통하

여서만 피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바로 그 구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을 첨가하였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속 해서 그는 Rom 1:19을 인용하면서 해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의 창조에서 명백히 보여졌다고 말한 곳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현현을 인간의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변명할 수 없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칼빈의 논의의 핵심은 우리는 오직 믿음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신앙이 없이는 자연 계시의 조명은 오직 인간이 변명할 수 없도록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로마서 1장 19절을 그것의 문맥 속에서, 즉 18절과 20절의 빛 가운데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롬 1:19-24에 대한 이 다섯 개의 직접 인용에 대한 관찰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강요 1권 4장과 5장에 나타난 그러한 인용문들은 정확히 바울의 논증의 문맥 속에 있는 의미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칼빈의 성경 구절 사용이 그것의 문맥에 부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그의 논의가 사도 바울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일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의 로마서 1장에 대한 사용은 바울과 칼빈의 일치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경우이다. 다음은 강요 1권 3장부터 5장까지에 나타난 로마서 1장 18-32절에 대한 암시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 27개의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암시적인 문장들과 구절들이 있는데, 이 수는 해석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암시적인 문장들의 명료성은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명료한 것은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 있는 구절들에 대한 인용일 것이고, 두 번째로 명료한 것은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 텍스트를 연상시키는 구절들이고, 가장 덜 명료한 것은 오직 내용적으로만 그 구절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추려 낸 간접적인 인용의 경우라고 판단되는 27개의 구절들의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요 1권 3장에 나타나 있는 세 개의 암시 구절들은 다음의 구절들이다. i)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20절 후반부와 19절) ii)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 (19절, 20절, 21절 상반부) iii) “사실 우상숭배도 이 관념 (*sensus divinitatis*) 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 하겠다. (19절, 23절) 이 세 구절은 모두 인간이 타고난 ‘신의식 (*sensus divinitatis*)’ 에 대한 칼빈의 논의의 문맥에서 발견된다. 칼빈은 로마서 1장 19절을 ‘신의식’ 을 말하는 구절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³⁸⁾ 이 세 구절들은 적어도 모두 분명한 간접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강요 I, iv, 1은 상기한바 로마서 1장 22절과 21절에 대한 직접 인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구절에 대한 다음의 암시적인 구절도 포함한다.

iv) “그러나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곧 그들은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여 제멋대로 어두움을 자초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공허하고 완고한 교만으로 우둔해졌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부언하였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와 같이 허망한 호기심에서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뢰에 따라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보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구절에 있는 암시는 너무나 분명하여 거의 21절과 22절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이 구절이 21절과 22절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만든다. “바르게 깨닫지 못함 (*blindness*)”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함” “어두움을 자초하고 (*bringing darkness*)” “스스로 우둔해졌고(*became fools*)” “공허하고 완고한 교만으로” 등.

강요 I, iv, 4는 다음의 암시적인 구절들을 포함한다. v)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며 (21절) 벌써부터 나타났어야 할 것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억제되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19절, 18절 상반부)” 여기에서 칼빈은 종교의 씨앗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신의식과 같은

38) John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trans. R. Meckenzie (Grand Rapids: Eerdmans, 1960), 31.

것으로서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나타났어야 할 것은” 18절의 “진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또는 “참된 종교”라고 해석 할 수 있다.³⁹⁾

vi) “그러나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결코 근절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 문장도 역시 종교의 씨앗에 대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19절 상반부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것의 부패성에 대하여는 21절부터 23절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요 I, v, 1에는 롬 1:19-20에 대한 상기한 직접 인용과 5개의 암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vii)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19절, 20절) viii)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한 것이어서,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 (19절)⁴⁰⁾ ix)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없다.” (19절, 29절) x) “그러므로 이 말은 우주 창조 이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시기 시작하신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영광의 휘장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는 말과 같다.” (20절) xi)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20절) 본 절 전체가 롬 1:20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현현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론을 20절에 대한 직접인용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위의 암시적인 구절들은 모두 이 구절들에 대한 분명한 시사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강요 I, v, 4에는 두 개의 암시구절들을 찾을 수 있다.

xiii)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배은망덕이 드러난다. 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은혜 입은 공장과...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여야만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그들은 각종의 많은 은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운다. 그들은 그것이 신성의 표시임을 알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39)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30.

40) *Ibid.*, 30-31 참조. 로마서 1장 19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 비슷한 문장을 발견한다.

들은 그것들을 그들 자신 속에 숨겨 버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며, 땅에 묻는다. 그들의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야 마땅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한다.” (21절, 19-20절, 18절)

이 문단 전체는 인간의 감사치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21절의 바울이 첨가한 “감사치도 아니하고”라는 구절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무한한 자비에 빛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계시를 우리의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⁴¹⁾ 다른 한 암시 구절은 다음의 구절이다. xiv)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동물과 구별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 버린다.” (25절)

강요 I, v, 5에서 그는 자연을 창조자와 혼동하는 것, 즉 범신론적인 관념들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로마서의 다음의 해당 구절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xv) “세계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그것을 움직인다는 우주 정신에 대한 그 빈약한 사색이, 인간의 마음에 경건을 일으키며 키우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은 실로 참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 그림자와 같은 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 하나님을 그 사역의 열등한 과정과 혼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21, 22, 25절)

강요 I, v, 9에 xvi)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증거들)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으며 손으로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란 구절은 20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를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요 I, v, 10에는 xvii)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역에서 특히 그 전체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림에서처럼 실제로 표현됨을 인정해야 한다.” (20절)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이 보이는 것들 속에 계시 되어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xviii)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우

41) Ibid., 32.

리는 그 사역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숙고해야하고, 우리를 위해, 그의 의, 선, 자비를 행사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20절) 이 구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즉 그의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지식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롬 1:18-32에 표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적 속성의 리스트는 21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20절에 그의 신성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다.

강요 I, v, 11에는 로마서 1:18-32까지의 바울의 논증의 논리적 연결점이 대강 시사 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xix)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하여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xx)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성에 대한 개념을 경솔히 파악하고, 즉시 자신의 육적인 망상과 광란에 빠져 들어가서 마침내는 공허한 것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부패하게 만든다.” (21, 23, 25절) xxi) “...기괴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하다.” (23, 25절)

강요 I, v, 12에는 인간의 미신이 하나님의 현현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 다루어져 있는데, 바울의 우상숭배에 대한 기술이 암시되어 있을 수 있다. xxii) “그것은 경솔함과 천박함이 무지와 흑암으로 더불어 결합되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1-23절)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서, 21절에 대한 그의 해석이 이 문장에 반영되어 있다. 이 점은 낮은 정도의 지식을 가리키는 “경솔함” 그리고 “천박함” 이란 말에서 보여 진다. 그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알되” 라는 21절의 상반부를 21절 하반부의 빛 속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그리 표현한다.⁴²⁾

xxiii)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세계를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 하는 미신의 목록을 구태여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정신의 그 맹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미신에 대하여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패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강요 I, v, 13에는 로마서 1장 21절에 대한 직접 인용 후에 하나의 암시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무지의 보편성을 가리킨다. xxiv)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참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전에 이방인들 사이에 신으로 경배 받던 것은 어떠한 신도 어리석고 거짓된 신으로 정죄한다.” 이 문장은

42) Ibid.

문맥으로 볼 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롬 1:23-25도 제외되지 말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죄라는 주제적 통일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리석음”과 “거짓된”이란 단어는 로마서 1장 25절의 같은 단어들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암시들 중에 가장 명백한 암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의 결론부인 강요 I, v, 15절 전체이다. 여기에는 롬 1:19-21이 주로 시사되어 있으며 특별히 그의 해석적 시각으로부터 암시되어 있다.

xxv)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명백한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본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로 우리의 양심이 나태와 배은망덕을 항상 깨우쳐 주지 못하더라도 무지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절)

이 문단은 20절을 시사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해서 20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시사하고 있다. 20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그는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현현의 명료성과 우리의 무지로 인한 그것의 부적절함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첨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사악함에 대한 선고 없이 무지함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⁴³⁾ xxvi)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놀라운 구조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씨앗을 즉시 부패케 하여, 훌륭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마땅히 그들 자신의 태만에 돌려야 한다....” (19절, 20절)

xxvii)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머리로 만들어 낸 꿈과 환상을 치켜세워서, 마땅히 참되신 근원에 돌려야 할 의, 지혜,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밖의 어떤 무엇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시는 역사를 악하게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전복시켜, 그 역사 자체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며, 창조주에게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21절)

이 구절은 분명하게 로마서 주석에 있는 21절에 대한 칼빈의 주해를 반영하고

⁴³⁾ Ibid., 31.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가 비실체적인 환영인 것처럼 그에 대한 상상의 그림을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광을 찬탈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허망하여져서...',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그들 자신의 이성의 허영에 달라붙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의 씨앗을 그것이 자리기도 전에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질식시키는 불의함인 것이다.⁴⁴⁾

강요 I, v, 15절에 있는 마지막 세 개의 암시구절들은 모두 인간의 변명할 수 없는 처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에 관한 칼빈과 바울의 논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직접 인용과 27개의 암시구절들을 검토하였다. 실로 혹은 자는 이보다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나 그것들은 칼빈이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특별히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18-23절에 대한 그의 주해는 기독교 강요 1권 3장부터 5장과 놀랍도록 상응한다. 이것도 또한 이 주제에 대하여 칼빈이 바울의 논증에 높은 정도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주제적 병행성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칼빈이 로마서 1:18-32에 깊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본고의 논지는 단순히 칼빈이 개념적인 자료들을 그 텍스트에서 가져 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텍스트가 칼빈의 논의 전체에 논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칼빈과 바울의 논증의 흐름 전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강요 1권 3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 요점은 자연 계시로 인해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 계시가 인간의 모든 변명을 앗아간다는 주장으

44) Ibid., 32-33.

로서, 그것의 부정적인 기능에 놓여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이상숭배를 통해 드러난다. 그의 논증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 정신에 심겨져 있고, 이것을 신의식, 또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한다. (I, iii)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곧바로 그들의 어두움과 악함으로 인해 매우 부패하여서 그들은 이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I, iv)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 사회에서 행하는 그의 사역으로부터 빛나는 하나님의 지식은 그들에게 허망한 것이 된다. (I, v) 그러므로 인간은 변명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놀라운 사역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지식의 씨앗을 인간이 스스로 부패하게 한 사실은 (그리하여 그것으로부터 선하고 완전한 열매를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한) 그들 자신의 실패에 돌려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I, v, 15)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분리시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자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계시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상기한 인용 중에 “자연의 놀라운 사역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지식의 씨앗” (I, v, 15)이란 구절로부터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또한 하나님의 피조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위의 전체 논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칼빈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타락의 결과로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요 I, iii, 1의 편집자 주 1에 보면, “인간 ‘내부의’ 하나님의 계시는 (3장) 인간의 죄로 인해 소멸되었다. (4장) 외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휘장(*insignia*)과 표지(*specimina*)들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지식도 동일하다. (14절) 그리하여 3장부터 5장은 칼빈의 인간론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즉 1권 15장에 기술하고 있는 인간창조와 2권 1절부터 5절까지 기술하고 있는 죄에 의한 타락이 전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편집자도 같은 논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칼빈의 논증에 대한 우리의 요약은 편집자 J. T. McNeill의 분류와 강요 5장의 요약으로부터 역시 지지 받는다. 그는 5장을 세 부분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이다. 그는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사역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데 실패하고 미신과 혼란에 빠진다고 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오류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가르친다고 보고 있다. 5장 내의 이러한 논증의 흐름은 3장부터 5장 전체에 걸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장들의 제목들과 결론 장인 5장에 대한 편집자의 부제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논제에 대한 칼빈과 바울의 주제적 병행성을 보이기 위해 바울

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대한 논증의 흐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전체 문맥 속에서의 이 텍스트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 소위 "이신 칭의"의 교리와 관련하여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 중심 주제는 3장 22절 상반부에 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라고 기술 되어 있다.⁴⁵⁾ 오토 미켈 (Otto Michel)은 제안하기를 이 구절들은 로마서의 주제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논의를 돕기 위해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증명 없이 복음의 제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장 18절에 바울은 심판을 선언하고 그것은 3장 9절과 20절에 계속 된다. 이 절들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죄의 지배하에 동일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전체 문단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2장 1절부터 29절은 유대인에 대한 진노라고 할 수 있다. 이 문단은 전체적으로 본 주제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과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⁴⁶⁾

유사한 이해가 존 머레이 (J. Murray)에 의해 표명되었다. 그는 이 문단 전체에 대한 제목을 "죄와 심판의 보편성"이란 제목을 붙여서 다루며 동일하게 두 부분, 즉 1:18-32은 이방인에 대한 정죄, 2:1-16 (29)은 유대인에 대한 정죄로 나누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세 개의 주제적 구절들, 인류의 보편적 죄의 상태를 말하는 3:23, 3:10, 그리고 3:19절들로 결론이 난다.⁴⁷⁾

그리하여 1:18-3:20의 단락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로마서의 주제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쿠스(Kuss)에 따르면, 이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치를 정립하려 했다고 본다.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은 인간의 불의함의 막대함으로 인함이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것

45)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 사이의 관계의 논제는 거의 모든 현대 주석가들에 의하여 다루어졌으며, 이 논제는 직접적으로 1장 17절과 18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한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단락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되어 있다. G. Bornkamm은 이 이슈들에 대하여 전승사적인 시각에서 다음의 논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The Revelation of God's Wrath," *The Early Christian Experience*, trans. P.L. Hammer (London: SCM, 1969), 47-70.

46) Otto Michel, *Der Brief an die Roemer*, (KEK), (Goettingen, 1966), 97.

47) John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 (Grand Rapids, 1967), 34.

이 현실임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쿠스는 바울이 1장 18-32에서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단락과의 연결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방인이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⁸⁾

소수를 제외하고 (Cranfield, Mould)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1:18-32절을 보다 넓은 단락 1:18-3:20의 한 부분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서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바울은 2장 12절에서 율법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 일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9-11 참조) 칼빈도 역시 1:18-32를 인간 일반에 대하여 논하고 2:1-11은 외적인 거룩의 베일로 내적인 부패성을 가리고 있는 유대인과 약간의 이방인을 기술한다고 보는 듯하다.⁴⁹⁾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마음에 가지고 논하던지 간에 1:18-32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는 자들”임이 분명하고, 또한 2: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내고 있다. 비록 바울이 1:18-32에서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말했을까라도, 만약에 유대인도 그 텍스트에 있는 범죄를 행한다면 그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구절들에 대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분을 그리 엄격히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장 12절 이하에 율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는 이 구분은 분명해진다. 1:18-32의 단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을 언급한 문맥 속에서 그들의 악함 가운데 진리를 억누른 자들이라는 점이다.

이제 중요한 논제인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개념을 사용하는 바울의 목적과 그것의 논증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어 보자.⁵⁰⁾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19절과 20절 상반부에서 주로 기술된다. 그것은 이방인 또는 인간 일반에 대한 바울의 정죄의 문맥에서 제시되며 그들의 변명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근거를 위해 제공된다.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고 간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정당한 것임을 뒷받침하게 된다. (18절) 동시에 그것은 21절 이하의 인간의 악함의 근거를 제공한다. 바울의 논증의 전체 구조

48) O. Kuss, *Der Roemerbrief*, Erste Lieferung Rom 1. 1-6, 11 (Regensburg: Friedrich Pustet Verlag, 1963) 26-28.

49) Calvin, *Romans*, 6.

50) 롬 1:18-32의 구조와 성격에 대하여 비하드 팝코스 (Wiard Popkes)는 매우 상세한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몇몇 그의 전제들과 주장들은 수용할만하지 않지만, 그의 구조적 분석은 매우 유용하며 계몽적이다. 우리의 구조적 분석도 느슨한 의미에서 그의 논문에 근거하고 있다. "Zum Aufbau and Charakter von Roem 1:18-32" in *New Testament Studies*, vol. 28 (Cambridge, 1982), 490-501.

는 분명하게 19절과 21절의 두 개의 “왜냐하면 (dioti)”이라는 접속사로 전개되고 있다. 모두가 18절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왜냐하면”은 19절과 20절을 이끌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변명할 수 없는 상태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논증은 2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왜냐하면”이 이끄는 논증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1절부터 23절까지도 역시 인간의 악함을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로 시작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인간의 악함은 19절과 20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들의 기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 경배한다. 이 중심적 오류, 우상숭배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더 광범위한 악으로 연결된다. 24절 이하에서는 보다 자세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반응을 (유기함, 24, 26, 28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부터 우리는 19절 20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의 근거를 세울 뿐 아니라 인간의 악함의 근거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21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감사치 않음이 인간의 더 깊은 부패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인간의 고의적인 거부는 모든 결과적인 죄악들,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을 야기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세상의 현실을 노출시키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로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의 정죄의 근거를 제공한다.

롬 1:18-32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억누르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피조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그리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들의 거부는 곧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대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의 불경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최후 심판과 형벌의 형태로써 현세에서 예비적인 방식으로 실행된다.⁵¹⁾

51) H.-J. Eckstein은 이 현세적 견해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만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논증은 칼빈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병행된다는 점이다.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하여 논증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을 사용하고 이 사실은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전제하고 표현하는 이상숭배에 의하여 확증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연적 지식의 가능성은 하나의 논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명하게 전제 된 것이다.⁵²⁾ 20절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긍정적인 위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그 논리적 결과를 돌려서 그것을 거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기술로 진행한다.⁵³⁾ 바울의 논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인간의 불경스러운 죄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한다.⁵⁴⁾ 이것은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가르침에도 정확히 그대로 적용 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지식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그것의 빛을 꺼버리고 허황된 이상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어두운 죄악성을 기술하는데 근거로서 사용한다.⁵⁵⁾ 또한 아무리 놀라운 자연의 작품이 옳은 길을 가리켜도 인간은 곧 그것을 부패시켜 버린다.⁵⁶⁾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 할 수가 없어진다.

이 두 논증을 비교해 볼 때, 그들 사이에 주제적 병행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양자가 모두 인간과 자연을 포함하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확한 현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주제를 인간의 죄악 됨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비록 강요 I, v, 15의 결론 부분에서 칼빈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지 않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의 불충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주장은 곧 이어 성경이 '더 나은 도움'으로서 소개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⁵⁷⁾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롬 1:18-32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 그 자체에 놓여 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실재에 놓여진다. 그들 문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의 위치에 대한

을 가르친다. "Denn Gottes Zorn wird vom Himmel her offenbar werden" Exegetische Erwagnungen zu Roem 1:18," *Zeitschrift fue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78 (Gissen: Berlin, 1987), 89.

⁵²⁾ E. Kaesemann, *Commentary on Romans*, trans. and ed. by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80), 40.

⁵³⁾ Otto Michel, *Der Brief an die Roemer*, 99.

⁵⁴⁾ Calvin, *Romans*, 29-30.

⁵⁵⁾ Calvin, 『강요』, I, iv, 2-3.

⁵⁶⁾ *Ibid.*, I, v, 15.

⁵⁷⁾ *Ibid.*, I, vi, 1.

그들의 논증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변명할 수 없는 처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주제적 병행성은 부인 될 수 없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 논증이 가지는 몇 가지 함의들을 언급하면서 맺고자 한다. 첫째로 칼빈은 성경에 근거한 교의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바, 칼빈은 기독교 교의들은 성경적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 그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에서 파생되고 성경을 바로 읽는데 도움을 주고자 의도되었다. 본 연구가 보이고자 한 로마서 1장 이하와 칼빈의 가르침의 일치성은 이러한 성경적인 그의 교의학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교의학에 있어서, 성경 구절의 많은 인용이 아니라 성경적 논증 구조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틀을 다른 어떤 사상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내 논증 구조에서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경을 단순히 신학자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텍스트로 사용하는 (proof text) 잘못된 교의학의 위험성을 근절하는 칼빈의 바른 접근을 보여준다. 바른 성경적 교의학은 그를 자체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복종하는 신학자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가능성 문제는 변증학의 중요한 논제가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변증학은 자연신학의 영역으로서 자연이성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변증학에 반기를 들고 개혁주의 변증학은 전제주의 논증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이 논제는 많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 다룰 수는 없으나 본고의 논증이 이 주제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다. 자연인이 가지는 신의식이 접촉점이 되어서 기독교의 신앙진리들을 논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칼빈의 가르침에 따른 답을 내리자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논지를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인의 이성 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러한 유신논증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진리를 변증하고자 하는 전통적 변증학의 접근 방법은 분명히 칼빈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칼빈이 주장한대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오직 신앙으로 조명된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만 가능한 것

이기에, 변증학의 방식도 이러한 원리에 충실한 전제에 입각한 논증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부패한 이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패한 이성이 고안한 사상체계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모든 기만을 밝혀냄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